

# 평행한 경고들 - 세 번째

예언적 메시지의 권능 부여: 계시의 천사들의 순차적 검증 절차

Jeff Pippenger

2023-08-08

지난 글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 모두가 손에 메시지를 들고 있음을 확인하며 마무리했다. 둘째와 셋째 천사는 그들의 메시지와 함께 내려올 때 '양피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각 천사는 하나의 메시지를 대표하며, 각 메시지의 도래는 어떤 영향을 일으킨다. 첫째 천사는 1798년에 도래했다. 그 메시지는 봉인이 풀렸고 임박한 심판에 관한 지식이 증가했다. 그 지식의 증가로 두 부류의 예배자들이 생겨났다. 둘째 천사가 도래했을 때 개신교의 타락에 대한 메시지가 봉인이 풀렸고 지식이 증가했으며 두 부류가 생겨났다. 1844년 10월 22일 밤중소리 기별이 도래했을 때, 그 기별은 엑서터 야영집회에서 봉인이 풀렸고 지식이 증가했으며 두 부류의 처녀들이 생겨났다. 1844년 10월 22일 셋째 천사가 도래했을 때, 셋째 천사의 메시지와 그것이 대표하는 모든 것이 봉인이 풀렸고 지식이 증가했으며 두 부류가 생겨났다.

천사들에게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천사들의 기별이 힘을 얻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전 글에서 보았듯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을 통해 힘을 얻었지만, 한밤중의 외침은 하나의 단일한 천사로 대표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천사들로 대표된다. 둘째 천사와 한밤중의 외침에 해당하는 역사는, 한밤중의 외침이 그와 결합될 때 둘째 천사의 기별이 힘을 얻었음을 보여준다. 같은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서둘러 이리저리 오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땅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며, 어떤 중대한 사건의 성취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또 다른 강한 천사가 땅으로 내려가라는 사명을 받고, 셋째 천사와 음성을 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더하도록 위임되는 것을 보았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고, 그가 내려올 때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게 비추어졌다. 이 천사 앞서 가고 뒤따르는 빛이 모든 곳을 두루 비추었고, 그는 힘 있는 큰 음성으로 외쳐 말하였다.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귀신들의 거처와 모든 더러운 영들의 소굴과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모이는 곳이 되었다." 둘째 천사가 전한 바 바벨론의 몰락에 대한 기별이, 1844년 이래 교회들에 스며든 부패를 덧붙여 다시 주어졌다. 이 천사의 사업은 적시에 임하여,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외침으로 고조될 때 그 마지막 위대한 사업에 합류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곧 맞게 될 시험의 때에 설 수 있도록 각처에서 준비되었다. 나는 큰 빛이 그들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그 기별로 하나 되어, 큰 권능으로 담대히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였다.

하늘로부터 온 능력 있는 천사를 돕기 위해 천사들이 보내졌고, 나는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음성들을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재앙을 받지 말라. 이는 그의 죄가 하늘에까지 미쳤고 하나님께서 그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이 기별은 셋째 기별에 더해지는 것으로 보였고, 1844년에 한밤중의 외침이 둘째 천사의 기별과 연합되었던 것처럼 그것과 연합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성도들 위에 머물렀고, 그들은 두려움 없이 마지막 엄숙한 경고를 전하여 바벨론의 몰락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호소하였다. 이는 그들이 그 무서운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하려 함이었다.  
영적 은사, 1권, 193, 194쪽.

한밤중의 외침은 둘째 천사와 연합하였고,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는 셋째 천사와 연합한다. 그리고 그가 셋째 천사와 연합할 때, 그는 재림운동의 시작에서 한밤중의 외침과 둘째 천사가 연합한 일을 반복하는 것이다.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라는 두 증인에 근거하여, 모든 천사의 기별에는 그것에 권능을 부여하는 부차적 기별이 있다. 이 두 증인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 역사 속에 도래했을 때, 그 후 어느 시점에서 그 기별이 부차적 기별에 의해 권능을 받아야 했음을 가르친다. 물론 이것은 첫째 천사에게도 해당되었다. 우리가 방금 제시한 긴 인용문의 첫 단락에서, 화이트 자매는 “나는 그의 사명이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임을 들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요한이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에게 부여한 것과 동일한 특성을 첫째 천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 문맥에서 그녀가 첫째 천사를 가리키고 있음은 분명하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1798년에 도래했으며, 오스만 제국의 패권이 종결된 1840년 8월 11일에 그 이후로 권능을 입었다. 그때 요한계시록 10장의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한 발은 땅에, 한 발은 바다에 두었다. 그는 첫째 천사의 권능 부여를 대표하며, 이로써 첫째 천사의 사역이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의 사역과 동일함이 드러난다. 둘 다 그들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추어야 했지만,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는 셋째 천사와 연합한다. 이는 밤중소리가 둘째 천사와 연합했던 것과 같고,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내려온 천사가 첫째 천사와 연합했던 것과 같다.

그러므로 첫째 천사가 나타났을 때, 봉인이 풀린 메시지가 주어져 예배자들이 두 부류로 나뉘었다. 첫째 천사의 메시지에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권능을 더해 주었을 때, 그는 요한에게 먹으라고 명한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그 봉인을 풀었고, 그 결과 예배자들이 두 부류로 나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둘째 천사와 한밤중의 외침, 그리고 셋째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도 봉인이 풀린 메시지가 주어져 시험이 되었고, 그 결과 예배자들이 두 부류로 나뉘었다.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 그리스도의 역사와 밀러주의자들의 역사를 비교하여, 밀러주의자들의 역사에서 일어났던 순차적인 시험 과정이 고대 이스라엘의 종말기였던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일어났음을 강조한다. 만일 순차적인 시험 과정이 영적 이스라엘의 시작과 고대 이스라엘의 끝에서 일어났다면, 고대 이스라엘의 시작 때 그랬던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의 끝에서도 순차적인 시험 과정이 있을 것이다.

밀러주의 역사에서 이는 1798년부터 1844년 10월 22일까지 두 부류의 경배자를 시험하여 드러낸 다섯 차례의 봉인 해제를 가리킨다. 이 구절은 시험에서 실패하면 다음 시험도 통과하지 못할 것임을, 왜냐하면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임을 분명히 가르친다. 또한 그리스도 당시에는 본래 선택된 언약의 백성이 구원의 계획과 관련하여 전적인 어둠 속에 놓이게 되는 것으로 그 시험 과정이 마무리되었음이 분명하다. 다니엘과 요한은 뒤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 곧 봉인이 풀려 드러난 각 새로운 진리를 개인적으로 연구해야 했던 점진적 시험 과정을 통과한 자들을 대표한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한 권의 책이며, 다니엘과 요한은 그 한 권의 책의 두 증인이다. 한 증인은 그 책의 시작이고, 다른 증인은 그 책의 끝이다. 두 증인 모두 상징적으로 죽음과 부활을 겪었다. 한 사람은 메대-바사 제국에 의해 박해를 받았고(미국을 예표함), 다른 한 사람은 로마에 의해 박해를 받았다(교황권을 예표함). 요한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데, 이는 다니엘이 자신의 예배 관행을 바꾸기를 거부하여 박해받은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들은 함께, 일곱째 날 안식일 대신 일요일 예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으로써 세상 마지막 때에 박해받는 자들을 대표한다.

다니엘과 요한이 표상하는 사람들은 이미 인침을 받았거나 장차 인침을 받을 자들이다. 다니엘이 왕의 '금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왕은 뜻이 변하지 않게 하려고 그 돌을 인봉하였다. 메대와 바사의 법에 따르면 왕의 금령과 그의 인의 권위는 변경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영원히 인쳐졌다. 왕의 도장으로 돌을 인봉하고 문을 닫았다. 일요일 법령이 선포될 때 문이 닫히며, 1844년 10월 22일에 문이 닫혔던 것처럼 그 문을 아무도 열 수 없다. 이는 예언 속에 제시된 사건들만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서 선지자가 표상될 때 그를 둘러싼 정황을 함께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까지도 고려해야 함을 보여 주는 단순한 예증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시작(다니엘서)과 끝(요한계시록)을 같은 예언의 두 증인으로서 함께 고려할 때 드러나는 힘을 보여 주는 예이기도 하다. 성경적 사실을 입증하려면 두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언된 사건들과 예언과 관련된 예언자들의 활동에 대한 묘사는 둘 다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입니다. 디모데후서 3:16, 17.

성경이 예언한 사건들이 세상의 종말을 보여 준다면, 예언을 받고 그것을 증언하는 예언자와 그의 주변 환경에 대한 묘사 역시 세상의 종말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언자의 주변 환경과 활동이 예언적으로 묘사될 때, 그 예언자는 세상 끝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말라기의 엘리야 예언의 맥락을 요한계시록 14장과 18장의 맥락과 함께 가져오면, 이 모두가 마지막 경고 메시지의 역사를 증언한다. 그러나 그 증언은 이중적이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 밖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언된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차적 증언은 그 메시지를 받으며 선포하는 동안 선지자가 겪은 경험으로 구성된다. 같은 역사의 외적 측면과 내적 측면을 대표하는 두 개의 예언적 흐름이라는 개념은 재림교 개척자들에 의해 인정되어 공개적으로 기록되었다. 내가 보기에 개척자들이 이를 적용한 고전적 사례는, 그들이 계시록의 일곱 교회와 일곱 인을 교회의 내적 역사와 외적 역사를 드러내는 병행하는 역사로 식별했을 때이다. 인들은 외적 역사를, 교회들은 내적 역사를 나타낸다.

말라기서의 엘리야의 기별과 요한계시록 14장과 18장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도 불리는 동일한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가리킨다. 1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별을 그리스도께 주셨고, 그리스도는 가브리엘에게, 가브리엘은 요한에게 전하였고, 요한은 그것을 교회들에게 보냈다. 엘리야의 기별과 요한계시록 1장,

14장, 18장에 나타난 기별은 모두 동일한 기별이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영은 선지자들에게 복종한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와 같이. 고린도전서 14:32, 33.

그 메시지는 언제나 같습니다. 이는 "예언자들은 예언자들에게 복종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구절들에서 'subject'로 번역된 단어는 다음을 뜻합니다. "종속시키다; 재귀적으로는 스스로 복종하다: 순종 아래에 있다(순종하는), 아래에 두다, ...에게 복종시키다, (...에) 종속되다(되게 하다), (...에)/...의 아래에) 복종 상태에 있다(두다), 자신을 ...에게 복종시키다." 모든 예언자들은 서로 일치하며 서로에게 복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최종 경고 메시지에 관한 모든 예언적 예시는 동일한 메시지를 나타낸다. 주님께서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 "지혜로운 자들"로 여겨지는 이들이, 다니엘서의 봉인이 풀릴 때 "지식의 증가"를 "깨닫는" "지혜로운 자들"로도 불리도록 계획하셨다; 또한 그 특별한 메시지가 봉인에서 풀릴 때 그 "지혜로운 자들"이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러한 인식은 성경 자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된 성경 연구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 방법론은 올바른 예언적 사건들을 확정하기 위하여, 성경적 주제를 다루는 여러 예언적 맥락들을 서로 나란히 병치하는 과정을 통해, 이사야서 28장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이 글을 여기서 마무리하오니 여러분의 인내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다음 글에서 이어가겠습니다.